

장수군, 흥학당 우리 문화재 가꾸는 날 실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직원·계남면사무소 직원 등 30여명 참여

장수군은 18일 흥학당(문화재자료 제147호)이 소재한 계남면 화양리 일원에서 '우리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겼다.

우리 문화재 가꾸는 날은 3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열리며, 운영은 문화재 지정·보존 업무부서에서 담당하여 관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주변 잡초제거·청소 등 환경정비를 통해 문화재를 가꾸는 행사다.

이날 행사는 장수군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직원, 계남면사무소 직원을 포함하여 30여명이 참여하여 실시했다.

흥학당은 충주박씨, 연안송씨, 남원양씨, 보성오씨 문화류씨, 전주최씨, 전주박씨, 동래정씨, 금계한씨, 인음서문씨, 청주한씨 등 11성씨가 모여 1717년(숙종 43년)에 세웠다.

계남향약소와 계남면사무소로 쓰인 적이 있고 흥학(興學)의 얼을 받아고 곁에 계남중학교를 설립했으며 많은 인재를 배출한 서당으로 인정되어 문화재자료에 등록됐다.

한편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가 열린 계남면은 일대에 화산사, 수열비, 지락정, 근수루 등의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예부터 학문과 풍류를 중요시 하는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장수가유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호남 최대 원형 집수시설인 침령산성(문화재자료



장수군은 18일 흥학당이 소재한 계남면 화양리 일원에서 '우리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를 통해 문화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겼다.

제176호) 등이 소재하고 있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은 "문화재 지정·보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련 직원들도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계기로 군민 스스로도 문화재를 보존하고 가꿀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참수=고관호 기자

고창서, '부처님 오신날' 맞이 범죄예방활동 강화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는 오는 22일 불기2562년 석가탄신일을 맞아 관내 전통사찰 8곳과 일반사찰·암자 27곳에 대한 화재 및 불전함 시뮬레이션 등 사찰대상 특별범죄예방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문화재 보관 장소와 시주함 설치 장소 등 범죄 취약개소에 대한 CCTV작동 여부와 봉축담 등 관련 특별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 및 시주함 절도, 사찰 방문객에 대한 낚시기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고창경찰서는 관내 사찰·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변 순찰 및 거동수상자에 대한 감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사찰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석 기자



무진장소방서, 찾아가는 119 안전체험교실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김일선)는 지난 16일과 18일 양일간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난상황을 재연, 체험을 통해 대처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이동식 이동안전체험차를 이용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운영했다. 지난 16일에는 무풍면 무풍초등학교에서 무풍초등학교와 무풍병설유치원 전교생 및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촌지역 찾아가는 119소방안전체험교실을 운영했고, 18일에는 진안휴게소(하행선)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동안전체험차는 다양한 재난상황을 재연, 체험을 통해 대처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이동식 체험 장비로 교육 영상자료를 활용한 화재예방교육, 지진체험 등의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 직원, 한마음 한뜻 농촌일손돕기

김제시 문화홍보축제실(실장 양운엽) 직원 20여명은 지난 17일 불철 영농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하면 관상리 관산마을(이장 오장균)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는 농촌 인력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에 조금이나마 일손을 덜어주고자 농가 품취 비닐 하우스 600여평 잡초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문화홍보축제실 직원들은 더운 비닐 하우스 안에서 능숙하지 않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평소 힘들게 작업하는 농가의 노고를 생각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농가주는 "최근 농촌 고령화로 영농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공직자들이 일손돕기에 참여해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해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산내면, '찾아가는 대화의 날' 마을좌담회 운영

산내면이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대화의 날' 마을 좌담회를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면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지난 3월 농교마을을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23개 마을에서 주야간 좌담회를 가졌다.

면은 주민의 일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숙원사업과 복지상담, 기타 고충 사항 수렴 등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면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좌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 관련 민원 23건, 하천 준설 공사 등 하천민원 9건, 모정과 경로당 보수 11건, 쓰레기 처리와 생활민원 27건, 기타 24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접수됐다. 면은 이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20건은 즉시 해결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일 전북도민회, 장수에 빛나무 기념헌수

재일 전북도민회(회장 한정희)는 18일 장수군 레드푸드융복합센터 부지에서 장수군에 빛나무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장수군을 방문한 재일 전북도민회는 왕빛나무 60본을 직접 식재했으며, 식재 장소인 장수레드푸드 융복합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번창을 염원하기도 했다.

재일 전북도민회는 1978년 전주-군산간 도로에 빛나무를 식수한 뜻을 이어받아 매년 전라북도 지역에 빛나무를 기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장수의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장수에서 헌수 행사를 하게 됐다.

한정희 재일 전북도민회장은 "빛나무 기념식수를 계기로 재일 전북도민회와 장수군간 우호와 협력의 꽃망울도 함께 피어나며 고향사랑의 꽃이 만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덕진구, 가정위탁 아동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한마당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기평)는 지난 19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관내 소년소녀가장·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가정아동 및 보호자 50여명과 함께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이번 공연 관람은 평소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가정아동들과 보호자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계획하였다.

공연을 관람한 이 모 학생은 "이번 명성황후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바로 알게 되었으며, 우리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높여주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과 함께 참여한 보호자 김 모 씨도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을 마련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반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